



홍용 박장현 대표, 전북대 발전기금 1억원 기부

㈜홍용 박장현 대표가 전북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1억 원을 기부한 뒤 두 번째다. 박 대표는 전북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최고위과정 3기 수료 등 전북대 동문으로서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특장 및 건설기계제조 분야 산학협력과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홍용에 전북대 출신 직원들이 우수한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 발전을 이끌고 있는 만큼 전북대에 대한 애정이 깊다. 특히 회사 직원들을 아끼는 만큼 전북대 후배들도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기금에 담았다. 박장현 대표는 "전북대와의 오랜 인연으로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도 이어오고 있는 만큼 대학 발전과 후배들을 위해 할 일을 하고 싶었다"며 "대학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에 위치한 ㈜홍용은 1990년 설립돼 32년을 이어온 전북지역 장수기업으로, 친환경 특장 및 건설기계를 생산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진안군,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네트워크 실시

진안군은 17일 마을 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네트워크'를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공영여행 풍덩 대표 조한철, 원연장마을 영농조합법인 대표 최상철 대리 정여진 사무장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담당자 및 농촌활력과 청년일자리팀장 및 마을기업 담당자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안내를 듣고, 마을기업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얘기했다. 현재 진안군 마을기업은 3개소(공영여행 풍덩, 원연장마을 영농조합법인, 중합동조합)가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예비마을기업 2개소(추천달보르데, 진안드림)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에서는 마을기업 사업으로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사업, 마을기업 재지원사업 등 7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마을기업의 제도적 기반보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김남수 농촌활력과장은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하여 마을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김제시-길보른사회복지관, 민·관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박준배)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영세)은 17일 청장년층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동남권 5개면·동지역(△금구면 △봉남면 △황산면 △금신면 △신풍동) 1인 청장년 가구 100세대에 식생활 꾸러미를 전달했다. 최근 청장년 1인 가구 증가와 더불어 고독사와 자살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청장년 가구를 발굴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청장년 식생활 꾸러미 지원사업을 신풍동(동장 이병호)을 비롯한 동남권 5개 행정복지센터와 길보른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게 됐다. 사업에 앞서 실무자 중심의 간담회를 통해 1인 가구 특성상 건강문제와 영양공급에 취약한 세대가 많다는 점을 파악하여 청장년층에 필요한 각종 식재료와 생필품을 각 기관들이 나누어 준비했으며, 각 기관장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들이 지난 17일 신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가정까지 준비한 물품들을 모아 청장년층 맞춤형 식생활 꾸러미를 손수 제작하고 가정방문을 통해 꾸러미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다. 본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잠재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기관들이 연계·협력하여 공공부문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틈새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추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고 지역복지에 증진사업 계획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가고싶은 학교-꿈꾸는 교실' 선정

대산초등학교, 미래과학 강국 꿈꾸는 농촌 시골학교 생존 도전기

대산초등학교(교장 김은숙)는 농촌 소규모 시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19~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대한민국발명전시회 전국본선(노유하, 지도교사 최유진) 진출은 물론,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금·은·동상(금상 1, 동상 5)을 휩쓸며 4년 연속 전국단위 각종 과학/발명/창의성 분야 도전해, 지난해 전국창업발명경진대회 대상 등 모든 대회를 석권하며 미래 과학 강국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산초등학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교실에만 웅크려 지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대산 과학 한마당 잔치'(담당 교사 이상관)를 개최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과학원리를 오감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 미래 과학 꿈나무를 양성하는데 혼신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대산초등학교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어울림학교에 선정되어 통학복지지원으로 고창읍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등하교를 지원해주고 있음은 물론, 초등학교 적응기가 필요한 신입생들을 위해 공간혁신교실 지원사업을 받아 1학년 학생들이 자기집 인방처럼 교실에서 마음 놓고 생활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2022학년도에는 청소년이공간사업에 선정되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외 놀이공간 시설까지 조성되어 아이들이 꿈꾸는 학교 가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전교직원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인문학을 겸비한 미래 과학 꿈나무를 양성하는 대산초등학교는 도서관 현대화 사업까지 마쳐 두산그룹의 지원을 받아 각종 창의성관련 도서를 구비함은 물론, 미래형 과학교실 지원 사업으로 드론 코딩



AR/VR, 3D프린팅 골드버그장치 등 각종 최첨단 교육 장비를 완비,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실물로 제작하는 목업장치까지 완비하여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대산초등학교 김은숙 교장은 '과학교육이야말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진정한 지름길이라며 최근 대한민국이 직면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속에 우뚝 서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인근의 많은 학생들이 대산초등학교로 찾아와 이러한 최고의 교육환경 속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가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1학년 신입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에서 '다용도 투명 플라스틱 방안자'로 동상(지도교사 이상관)을 수상한 김승준 학생은 매일 아침 1등으로 등교해서 담임선생님을 기다릴 정도로 학교생활이 너무 행복하며 얼굴에 합박웃음이 떠나지를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교직원들의 학생들을 사랑하는 진심어린 노력들은 이번에도 대산초등학교가 '가고 싶은 학교-꿈꾸는 교실'에 선정되는 결실을 낳아 전북도교육청에서 발행하는 교육잡지에 소개되는 등 최근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동현교회, 전주대 선교센터 건축기금 1억원 기부

전주동현교회가 전주대학교 선교센터 건축기금으로 1억 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주동현교회는 1978년 전주시 인후동에서 설립, 2011년부터 이진호 목사가 위임받아 지금까지 작은도서관 및 방과후학교 운영, 어르신들의 외출을 돕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등 지역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건축기금 기부는 지역 교회와의 연합을 통해 힘든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청년들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미션을 수행할 '전주대학교 선교센터' 건축에 전주동현교회 이진호 담임목사와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다. 이진호 목사는 "청년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전주대학교 선교센터 건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전주동현교회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진배 총장은 "지금까지 전주대와 지역교회가 연합하는 연결고리가 돼고, 캠퍼스 복음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즐거운 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 감사드립니다"며, "이진호 목사님을 비롯한 전주동현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소중한 헌정이 잘 전달돼 이 시대가 필요한 청년들을 양육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지역사회와 연합을 통해 다양한 리더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체제 및 기독교 교과목 운영을 통해 지역 교회와 연합해 종교교과 증강교과 체제 확신을 통한 다음 세대 양육, 시골 교회와 미자립 교회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약 140명 규모의 전주대학교 선교센터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송천2동 지사협·주민자치위·통우회,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전주시 덕진구 송천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채봉덕)는 17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인수), 통우회(회장 정순우)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아동 6명에 대해 월 5만 원씩, 18세까지 총 2160만 원을 지원하는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현재 송천2동에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48명 중 현재 38명이 가입했으며 이 중 6명은 올해 3월부터(사)이웃사랑의사회와 결연해 정기후원 중이다. 이번 전달식으로 총 12명의 관내 아동이 정기후원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하고자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로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 도움으로 월 5만 원 적립 시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총 15만 원이 적립된다.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들이 디딤씨앗통장 대상이며 적립금은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 정대선 송천2동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꾸준히 저축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하여 힘과 정성을 함께 모아주신 자선단체 회원분께 매우 감사드립니다"며 "아동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우방교회, 인후2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전주우방교회(안상철 목사님)는 17일 인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선도들의 정성으로 모은 성금 15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관내 위기가구, 복지사각지대 가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안상철 전주 우방교회 목사는 "이번 성금 전달이 소외받기 쉬운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전주우방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진숙 인후2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어 감사하다"며 "성금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따뜻한 인후2동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적십자 완산지구 평화봉사회, 희망나눔 세탁봉사

대한 적십자사 전주 완산지구 평화봉사회(회장 이정진)는 17일 평화주공 4단지 내 배드민턴장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탁봉사활동을 펼쳤다. 학산종합사회복지관과 공동주관으로 이루어진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한적십자사 전주 완산지구 협의회(회장 김석환)가 함께했다. 이날 봉사회원들은 주민들의 대형 세탁물을 수거하고 세탁·건조 서비스를 했다. 서비스를 이용한 한 주민은 "평소 집에서 세탁할 업무를 못 했는데 지역에서 봉사해주는 분들 덕분에 깨끗하게 이불빨래를 할 수 있어서 기분도 좋고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정진 평화봉사회 회장은 "세탁봉사로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60여 명의 이불을 맨발로 빨고 말리는 과정에서 봉사원들과 두터운 정을 쌓을 수 있어 더 감사하다. 앞으로도 사랑의 세탁봉사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중화산1동 새마을부녀회, 취약지역 일제대청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새마을부녀회(회장 김복동)는 17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만들기를 위해 취약지역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5개조로 나뉘어 관내 신흥고등학교·엠마오사랑병원 구간, 한두평공원, 선너머공원, 스타벅스 앞 강령교회 앞 등 불법투기 상습지역에서 적치된 쓰레기 폐기물을 수거했다. 김복동 회장은 "초여름을 맞아 주민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방문객들에게는 깨끗한 중화산동의 첫인상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대청소를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살기 좋은 중화산동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은례 동장은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해주는 중화산동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도심속 향기원 황톳길 개장

남원시가 도심속 향기원에 시민 및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맨발 걷기 건강 황톳길을 조성했다. 황톳길은 길이 143m, 폭 1.2m로 조성되었고, 황토 체험장 20m, 세족대 1개소, 안내판 2개소가 설치되어 이용자 누구나 맨발로 황토를 걷는 체험을 할 수 있다. 황토에서 발생하는 원적외선은 혈액순환 개선, 통증 완화, 해독·항균 작용이 있어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일상 속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톳길 외에도 도심속 향기원은 17,374㎡에 규모로 현재 꽃양귀비, 작약, 수레국화 등의 꽃들이 피어내고 있고, 운동기구와 정자, 어린이 놀이터 등이 있어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황톳길 걷기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